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집중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큰 주제(big topic)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에 대해 집중합시다.

오늘 저는 유명한 유언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중 아무도 마지막 날에 어떤 유언을 남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유언을 남길 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난 며칠간
많은 유명인사들이 남긴 유언을 기록한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다소 독특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유언들이 대부분 평범했습니다.

슬픈 유언도 있었고,
또 가끔씩 심오한 유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유언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유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유언은
조지 켈리라는 사람의 유언입니다.

조지 켈리는 미국인 극작가였고,
1974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에, 조카 중 한 명이
그에게 작별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네가 나에게 작별인사를 하기 전에,
머리를 좀 다듬으려무나. 머리가 헝클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유언은
콘래드 힐튼이라는 사람의 유언입니다.

그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전 세계 힐튼 호텔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누군가 그에게 지혜가 담긴 말을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워커튼을 욕조 안쪽에다 넣으시오.”

그것이 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 유언들이
여러분을 잠깐 웃게 만들 수는 있지만,
미래의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유언을 이해한다면,
삶을 변화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유언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기록되었던 마지막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유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사망 후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마지막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들고
요한복음 19장, 16절 후반부를 봐주십시오.

제가 몇 절 앞부터 읽고
다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이해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전에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이 정체성(Identity) 코스 몇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극적인 구원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라는 것과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세상에 독생자를
주어 탕자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와 같은 탕자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이 완성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외침이지, 실패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가 아닌,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일들 중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완벽한 삶을 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영생을 보내기 위해

왜 두 가지 일이 필요했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고통입니다.
영국의 문화에서,

십자가는 하나의 장신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장신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쇼핑센터로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마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깐요.

오늘날 사람들 목에 걸려있는 것은

금 또는 은으로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닌
사형 집행 장소였습니다.

십자가는 범죄자들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처형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법을 어긴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형용 전기의자와 같을 것입니다

상상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액세서리 가게에서 샀다면
신나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뭘 산 거지’ 하면서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친구가 산 것은
은으로 된 전기의자인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살수 있어?”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왜 차고 있는 거야?”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몇 년 전 처형당하신
우리 삼촌을 기억하려고”라고

말하지도 않겠죠.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의 시대 이후의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 고난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강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 고난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왜 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라
무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 나와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다시는 심판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의 고난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은 육체적인 고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읽을 때 흥미로운 것은

십자가 위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
그다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만 나와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겪으셔야 할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옥에 떨어져
더 고통 받으신 것이 아니라,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은 “부분적으로는 이루었지만, 아직 해야 할
것이 조금 남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완벽한 삶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몇 십억 명의 죄 값과,
고난과, 징벌을 대신 감당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 명의 인간인 예수님께서

세대를 넘는 수많은 죄인들의 죄 값을
대신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Identity)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수많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는
최고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첫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수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지 않는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어느 분을 고를까요? 로버트 씨!
이분이 오늘의 자원자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씨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청년이죠,

믿을만하고, 공손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로버트.

그래서 로버트 씨가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차 좀 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빌려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씨가 “잘 쓰고 돌려 드릴게요.

몇 번 시범 운전도 해봤고, 제 자동차보험도 있어요.
심부름을 좀 해야 할게 있어서요.”

그럼 저는 ‘아, 좋아요 로버트 씨. 여기 차 열쇠 있어요.
소중한 차니 잘 돌봐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씨는
제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로버트 씨는 다소
스피드 광입니다.

로버트 씨는 거칠게 차를 몰고

여러 번 보도에 차를 부딪치기도 합니다.

벽에도 많이 들이박습니다

그는 부딪치기도 하고 굵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집 앞에서
극적으로 벽에 차를 들이박습니다.

로버트 씨는 차에서 내려

소심하게 저의 집 벨을 누릅니다.

제가 나와보니 제 차가! 우리 집 벽이!
망가져있습니다.

알고 보니 로버트 씨는 보험도 없었던 것입니다.
로버트 씨는 저에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저는 자비롭게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이 손상에 대해

누가 수리비를 지불할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비용은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용서는 무료지만, 결코 저렴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두 팔을 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나를 구주로 삼고 용서를 받으라”

하지만 이 용서는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대가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에서
고통 받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삶입니다.

주님의 완벽한 삶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으시죠?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삶을 읽으면

주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으실 때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완벽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주님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제가 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이 생애에서의 100%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50%도 아니고,
75%, 85%, 95%도 아닌 100% 순종.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쩔 때는 사람들이
“그거 좀 높은 기준 아닙니까?”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기준을 낮춰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왜 우리가 100% 이하를
기대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미국에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을 모두 내버려두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과연 좋은 행동일까요?

어찌됐건 제가 돈과 명예를 얻으러
미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곳에서 저는 미국의 명문대에 들어가
공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명문대에 들어가려고 보니
매우, 매우 높은 입학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괜찮습니다. 왜죠?
이러한 높은 기준들은

질 좋은 교육기관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영이니까요.
이러한 높은 기준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100% 순종이라는 기준도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의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맞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님의 놀라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놀라운
제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내가 너를 대신해서 고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삶도 대신해서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우리 죄에 대해 사면해 주시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온전할 질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면과 온전함.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결혼이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결혼에 대한 예를 들 때마다

“또 아내 이야기를 하려는 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제 아내에 대해 이야기 하는걸 좋아합니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결혼을 예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혼식 당일에는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저도 그날 아내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내도 똑같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때에 합법적이며 깊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며,
서로간에 큰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위해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왔고,

제 아내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왔냐고요?
비키는 많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좋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결혼을 위해 무엇을 가져왔는지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식 날 합법적이며 깊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 되었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개개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합법적이며 깊고 새로운 관계,
매우 가까운 관계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풍성한 나눔도 있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있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시겠습니까?
과거의 삶과 죄악들을 가져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지불하였다.”
“얼마나 지불하셨나요?”
“전부 다 지불하였다.”
“모든 것들요?”
“그렇단다. 너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
전부 지불하였단다.”
저는 “광장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해 가져오는
완벽한 하나됨과 순종을 네가 누릴 수 있단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가 행한 모든 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가 없는 용서,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
이것들이 나에게 천국이 보장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 맞죠?”
여러분이 왜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해서 아내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을 때
저는 “좋아! 반지도 껴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위대하신 왕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없는 삶이 어떠했던가를 기억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딱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곳에
재미와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틀렸다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으로 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 해변으로 밀려온 고래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구해 바다에 풀어주었을 때,

고래는 “좋아, 해변에 다시 가서
한번 더 구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당초 계획되었던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유명한 유언입니다.
그렇게 간단치는 않지요?

그러나 “다 이루었다”는 이 유언은
여러분이 이해만 한다면

삶을 변화시키는 잇는 말입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각 조별로 모여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